

2015학년도 햇님쌤 HYPER 시리즈 문제지

정답 및 해설

1.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④, 정답률 : 15%

고난도

햇님쌤 해설

: 이 글의 주제는 결국 moral choice, instruction 이 없어도 과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enables us to do all kinds of things and to make all kinds of things 해 줍니다.
즉, 무엇이든 하고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이고
그것이 필자가 이야기하는 도덕적 instruction없이도 과학이 가지는 가치인 것입니다.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갈 수 있는 열쇠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아무리 열쇠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열쇠 없이는 instruction도 무의미하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instruction이 좋은 것을 만들 수도 나쁜 것을 만들 수도 있게 하지만 결국 무언가를 만드는 과학이 없이는 instruction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문장을 해석해보면 과학이 엄청난 공포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단지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는 뜻이 되죠.

이 문제에서 제가 의도한 것은 2014수능 B형 32번처럼 주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두루뭉실하게 비슷한 함정의 선택지를 피해갈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주제 파악 없이 단지 군데군데 보이는 paraphrase만으로는 걱정하고 들어오는 함정성 선택지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 ①번 선지 there could be something useful in science가 답이 아닌 이유

제가 1번을 오답으로 만들면서 주었던 함정 포인트가 바로 useful입니다.

Scientific knowledge is an enabling power to do either good or bad – but it does not carry instructions on how to use it.

과학은 좋은 것을 할 수도 나쁜 것을 할 수도 있는 힘, 즉 잠재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짜 좋은 것, 진짜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instruction이죠.
즉, 여기에서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은 과학은 그냥 무언가를 할 뿐이고, 그것을 좋냐, 나쁘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instruction이라는 것입니다.

주제가 과학이 좋은 것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은 틀리죠.
필자는 아예 과학에게 좋고 나쁘고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에 useful을 넣게 되면 **이것은 이미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 가치 있는 이유로 실격이 되는 것이죠. 5번 선지가 답이 아닌 이유도 이와 유사합니다.

2.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①, 정답률 : 66%

햇님쌤 해설

: 이 글은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 이후에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price gouging laws(바가지 금지법)에 대해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의 의견을 소개한 글입니다.

바가지 요금에 대해 그는 시장이 용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가지가 아니며, 또한 그것을 탐욕이라 불러서도 안 된다. 즉, **감정적으로 그것에 대해 분노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시장안에서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른 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제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자유 시장 법칙을 억압하는 정당화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죠.
이것이 정답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가 됩니다.

상인들을 악마화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대중들의 여론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자유 시장 경제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빈칸 다음의 문장과 연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인들을 악마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인들이 자기 할 일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will 다음에 **생략된 부분과의 연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3번이 오답으로 결정됩니다.
3번은 그 자체로 맞는 말이지만, 뒷 문장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오류가 되어 버리죠.

(+) 상호 작용(추론적 이해) 문제에서 ‘선지를 본다’는 것의 의미

1. 선지의 구조적 해석을 정확히 한다(전치사구 등).
2. 글과 연계하여 의역하고 단순화해본다. (결국 이런 얘기군)
3. 2의 결과물을 가지고 각 선지들을 비교하여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4. 지문의 논리와 가장 어긋나는 것 순으로 배제해 나간다.(가장 틀린 것 X, 모르겠거나 덜 틀린 것 세모, 요런 식으로)
5. 정답으로 생각되는 선지를 빈칸에 넣고 마지막 논리 점검.

3.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⑤, 정답률 : 20%

고난도

햇님쌤 해설 : 이 글은 인간의 심리적 defense, 즉, 방어기재에 관한 글입니다.

이 defense가 인간의 어떤 무의식적 욕구를 위해 기능하는가 하는 것이 빈칸이었구요.

즉, defense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맞추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빈칸 다음에 설명은 이미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해석이 좀 까다롭죠.

- 무의식의 내용물이 계속 무의식 속에 있게 하는 과정
- 억눌렀던 것을 계속 억눌러 있게 하는 과정
- 알게 되면 그걸 안다는 것에 안절부절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과정

이것이 defense의 기능이자 정의로서 글에서 준 것입니다.

즉, 이글에서 이야기하는 defense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그 존재를 알면 안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덮어두기 위해 기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 방어기재로서의 defense라고 하면 흔히 우리를 상처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알게 알고 있는데 반해, 여기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오히려 내 안에 내가 알아서는 안될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 튀어나와 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 즉, 그것을 계속 덮어두기 위한 것이 defense의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중간에 예시 파트에 한 번 더 나왔죠.

fear of intimacy is an effective defense [against learning about our own psychological wounds]

즉, 친밀감에 대한 공포도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상처들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defense라고 말이죠.

해서 정답은 우리의 무의식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알아보지 않으려는 욕구를 위해 기능하는 것이 defense다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2번에서는 overcome이라는 것이 덮어둔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구요. 물론 덮어둠으로써 극복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학생들은 아직 평가원 코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A-B-C의 흐름이 있는데, A가 B를 거쳐 결국 C로 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해도 글에서 이야기한 것이 B까지만 이라면 정답은 A-B로 봐야 합니다.** 굳이 A-B가 있는데, 그걸 연장해서 자기 추론을 덧붙여 C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4번의 경우는 fear of intimacy에서는 제법 맞는 설명이 되겠으나 인간된 도리님이 지적했듯이 너무 지엽적으로 예시 상황에만 국한되는 설명이죠. 우리의 문제는 **전체적인 defense의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4.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①, 정답률 : 17%

고난도

햇님쌤 해설 : **이 글은 old age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논하는 글입니다.**

그 악영향이란 old age들은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빈칸 즈음에서는 old age들이 얼마나 변화하기 힘든가를 예시하기 위해 급진적 성향의 old age를 언급했습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radical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고정된 입버릇처럼(fixed verbal habit)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조차도 실제적인 변화는 감당할 수 없다(can't bear actual change)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슬픈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즉, **그 슬픈 상황이란 자신이 바라는 이념이 차라리 실행되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자신이(혹은 자신의 이념이) 실효성 없을 때에만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것, 즉, 웃픈거죠.

이것이 바로 그에겐 무엇보다 가혹하고 슬픈 상황이 되겠습니다.

빈칸 밑에도 다시 한 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변화를 주장하나 실제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의 paraphrase로서 자신의 바람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 답이 됩니다.**

이 상황 자체가 본인이 radical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2번은 틀립니다.

즉, conservative해지는 것 자체는 아예 이 슬픈 상황을 성립시키지 않죠.

5.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②, 정답률 : 25%

고난도

햇님쌤 해설

: ① It has been disputed at what period of life the causes of variability, whatever they may be, generally act; whether during the early or late period of development of the embryo, or at the instant of conception. ② But I am strongly inclined to suspect that the most frequent cause of variability may be attributed to parents' reproductive elements having been affected prior to the act of conception.

-> ① 다양성의 원인들이, 그들(causes)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생(生)의 순간에서 일반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어왔다; 배아의 발달의 초기 혹은 후기 시기 동안인지, 혹은 수정의 그 순간에서 인지. ② 그러나 나는 다양성의 가장 빈번한 원인은 [아마 수정의 행위 이전에 영향을 받은 부모의 생식 요소들] 이라고 강하게 생각한다.

=> 필자는 다양성의 원인이 수정 그 '순간'도 아니고, (수정 '후'의) 발달의 이르거나 늦은 시기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만으로 선불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반대 case를 상정하면서 '수정 [후]도 아니고 그 [순간]도 아니면 혹시 다양성의 원인을 수정 [전]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읽어 내려간다면 글의 의미가 쉽게 다가올 수 있었을 듯 싶네요. 물론 나중에 첫 문장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 추적하는 것만 해도 답을 찾는데 충분하겠네요.

③ It has been found out that a little more or less water at some particular period of growth,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plant sets a seed.

-> 성장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약간 많거나 적은 물이, 그 식물이 씨를 set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왔다.

=> 앞 내용을 머금고 '생의 어떤 시기가 다양성의 원인일까?'를 생각해보면서 추론한다면, '특정 시기에 그 부모의 특정 성장기에 주어지는 물의 양이 번식(sets a seed)을 결정한다'는 이 문장은 빈칸에 필요한 '어떤 시기' 를 가장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답을 분명하게 조여주는 문장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요. 이 문장을 읽고 선지를 보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

* 빈칸 추론은 객관식입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5개의 선지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당연한 말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④ When we see domesticated animals and plants, though often weak and sickly, yet breeding quite freely under confinement; and when we see individuals, though taken young from a state of nature, perfectly tamed and healthy, yet having their reproductive system so seriously affected by unperceived causes, we need not be surprised at this system, when it does act under confinement, acting not quite regularly, and producing offspring not perfectly like their parents or variable.

(아마 많은 분들이 해석하다가 지쳐서 포기한 바로 그 비호감형 문장일 겁니다. When we see ~ 이 문장은 see O V-ing 의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문장이 긴 만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끊어 읽으면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가 비록 종종 약하거나 아픈 길들여진 동물들과 식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금 (confinement)하에서 꽤나 자유롭게 번식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비록 자연의 상태에서 어린 상태로 가져와 진, 완벽하게 길들여지고 건강한 개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는 원인들에 의해 그들의 생식 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받은 것을 볼 때, 꽤나 규칙적이지 않게 작동하는, 그리고 그것(system)이 자손을 그들의 부모들처럼 완벽하지 않게 생산하고 자손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감금(confinement)하에서 작동할 때, 우리는 이 시스템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 그래서 이 문장은 ‘그래 그러면 말이야, 부모의 생식 요소들이 수정 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왜 다양성의 원인인데?’라는 물음에 대한 이유가 나온 것이고, 그 이유를 confinement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onfinement 하에서는 이 생식 시스템이 규칙적이지 않고(부모의 상태가 번식의 성공과 불일치) 그들의 부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손을 만들고 자손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빈칸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찾기는 힘듭니다. 사실 다른 단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일반론 - 빈칸 - 예시로 이어지는 글의 구성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해설을 보고 느끼셨겠지만, 이 경우 결국 예시를 정의하는 말이 빈칸에 필요하고, 그 정의의 관점은 빈칸 위의 방향설정이 제시해 줍니다.

6.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④, 정답률 : 20%

고난도

햇님쌤 해설

: ① 삶의 위협들이 죽음의 위협보다 더 커지는 지점에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들은 상당한 저항을 제공 한다: 그것들은 그 출구의 문지기처럼 서있다. 이것은 억제책이 된다, 왜냐하면 몸은 살려는 의지의 현상적 형태이니까.

→ 흔히 우리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다면 죽음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죽음이 주는 저항은 상당하죠. 몸은 살려는 의지 자체의 표현인데, 그 몸에 엄청난 고통이 가해질테니까요. 그래서 죽는 순간의 육체적 고통이 바로 resistance/deterrent/sentinel 입니다.

→ 육체적 고통 때문에 죽는 것도 쉽진 않다!

② 그러나 그 문지기와의 싸움은 멀리에서 우리에게 보이듯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 사이의 대립관계에 있다.

→ 그런데, 정신적 고통을 등장시키면 이 문지기와의 싸움(죽음의 육체적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

③ 우리가 큰 혹은 만성적인 육체적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들에 무관심해진다: 우리는 온통 회복에만 관심이 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은 우리를 육체적 고통에 대해 둔해지게 만든다: 우리는 육체적 고통 따위를 경멸(무시)하게 된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을 압도하게 된다면, 육체적 고통은 (무시무시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로운 주의분산이 된다.

→ 더 큰 아픔이 작은 아픔을 잊게 만들어 주듯이, 엄청 큰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을 잊게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역현상이 일어난다면, 즉, 굉장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 클지도 모르는 육체적 고통이 나타난다면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을 잊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④ 바로 이점이 자살을 더 쉽게 만든다.

→ ①의 죽음의 육체적 고통, 그로 인한 공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육체적 고통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①에서 말했듯이 죽음이 가져오는 육체적 고통은 잠시나마 정신적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해 줄만큼 큰 것이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진 사람이 결국 잠시나마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진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⑤ 과도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의 눈에는 자살과 관련된 육체적 고통은 모든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육체적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그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단지 잠시나마 자신의 거대한 정신적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 이외에는요.

①번과 ②번은 모두 사실 비슷한 논리입니다. 즉, 둘 다 자살을 감행하게 된다는 뜻이죠.

(+) 보충 해설 (수험생의 해설)

필자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삶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크면 그 사람은 죽음을 선택할 것이라고들 생각하죠. (덜 고통스러운 쪽을 선택할 것이기에.)

하지만, 필자는, 죽음의 순간에서의 고통은 '상당한' 저항을 제공한다. 라고 했어요.

즉, 죽음의 순간에서 절대적인 고통의 수치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삶의 고통의 수치보다 크다는 거죠.

(두번째 문장이 이런 의도로 쓰였다는 것은 필자의 첫 문장 발화의도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구요)

그리고 그걸 끝판왕(?)으로 비유했죠. 고통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구요.

근데 또, 필자는,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의 대립관계로 인해 이 끝판왕과의 싸움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해요.

육체적 고통이 극심할 때, 다른 모든 문제들은 안중에도 없죠.

마찬가지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땐, 육체적 고통은 안중에도 없죠

만약 정말로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을 능가한다면? 정신적 고통을 견디게 해주겠죠. **이로운 분산작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기 더 쉬워지는 거라고 필자는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 자살과 관련된 고통이 끝판왕 급으로 엄청 크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그 순간에 육체적 고통이 과한 정신적 고통도 견딜 수 있게 해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과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사람의 눈에는 그 육체적 고통이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7.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③, 정답률 : 35%

고난도

수험생의 해설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수험생의 해설이 더 구체적이므로 수험생의 해설을 대신 올림.)

: Is 'S' now a word in her private language? (그녀의 사적 language 속에서 'S'가 word 인가?) 에서 필자는 본격적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필자는 word와 language를 구분했고, 'S'는 그녀의 사적 언어 속에서 word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S'가 word가 되려면, 'S', 즉 mark, sound(language)가 meaning을 가져야 하고, meaning을 가진다는 것은 쓰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쓰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자에 따르면 '그것이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Marks and sounds get to have meaning against the backdrop of a system of use, rules for going on in one way and not another.

(mark, sound[language]는 사용 체계, 다른 방식은 안 되고 오직 한 방식으로만 가는 규칙들을 등지고 의미를 갖는다.)

사용 체계가 있어야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사용체계는 특정 상황에서만 쓰이는 것을 의미하구요.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그녀의 사적 언어 속에서 'S'를 오직 특정 sensation에서만 사용해야한다는 규칙, 시스템을 그녀가 sense해야만 'S'가 비로소 word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고 이 글의 주제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필자는 '나한테 옳은 것처럼 보이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규범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규칙, 규범, 기준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상황이 아닌 특정 상황에서만 쓰인다는 것을 sense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riterion for correctness없이 특정 센세이션을 가질때 노트북에 'S'라고 쓰는 것은 오직 이 경우에만(going on in one way and not another) 'S'를 쓴다는 규범이 없는 것이므로 'S'는 word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external check(다른 방식으로는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즉,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그 mark가 쓰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방식 없이는 mark는 그저 mark에 불과하고 word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8.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④, 정답률 : 100%

햇님쌤 해설

There are two ways of fighting: by law or by force.

싸움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법에 의한 싸움 혹은 힘에 의한 싸움.

The first way is natural to men, and the second to beasts.

첫 번째 길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고, 두 번째 길은 짐승들에게 그러하다.

But as the first way often proves inadequate one must have recourse to the second.

그러나 첫 번째 길이 종종 부적절한 것으로 입증되기도 하므로 (싸움의 길을 가는) 군주는 두 번째에 의존해야만 한다. *have recourse to N : ~에 의존하다

So, as a prince is forced to know how to act like a beast, he must learn from the fox and the lion; because the lion is defenceless against traps and a fox against wolves.

그래서, 한 군주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법을 알아야만 하므로, 여우와 사자(모두)로부터 배워야만 한다; 사자는(사자만으로는) 함정에 대해 무방비이고 여우는(여우만으로는) 늑대에 대해 무방비이기 때문이다.

Therefore one must be a fox in order to recognize traps, and a lion to frighten off wolves.

그러므로 군주는 함정을 알아채기 위해 여우가, 늑대를 겁줘 쫓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만 한다.

*여기까지의 흐름이 해석이 어렵다거나 이해가 안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군주가 나아가야 할 성향을 여우형과 사자형 두 가지로 분류했군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둘 간의 비례도 중립적입니다.

Those who simply act like lions are stupid.
단지 사자처럼만 행동하는 군주들은 어리석다.

*여기에서 주관이 개입되어 글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글에서는 명백히 사자쪽을 꼭 짚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 여우 쪽을 비판하는 말은 없구요. **제가 의도한 글의 파악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So it follows that a prudent ruler cannot, and must not, honor his word when it places him at a disadvantage and when the reasons for which he made his promise no longer exist.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신중한 지도자는 자신의 약속이 자신을 불이익에 빠뜨리고 그가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할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말아야 한다.

*예시 혹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여우가 되는 길의 예시인 것입니다. 물론 이 뒤를 더 보셔야 확실히 캐치할 수 있습니다.

And no prince ever lacked good excuses to color his bad faith.
그리고 어떤 군주도 자신의 무신용을 채색할 좋은 변명거리들을 결여한 적은 없었다.

* 바로 여기서 excuse, color 라는 단어들이 바로 lion과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죠. 즉, 여우의 라인에 속할 어휘들입니다.

But one must know how to color one's actions and to be a great liar and deceiver.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행동들을 채색하는 방법과 훌륭한 거짓말쟁이, 기만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변명거리들은 많아도 그것을 훌륭하게 채색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군요. 물론 그 목적은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가 되겠죠.

A prince, therefore, need not necessarily have the good quality of honoring his word, but should certainly appear to have it.

그러므로, 한 군주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좋은 기질을 꼭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확실히 그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야만 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모든 군주에게 좋은 변명거리들은 다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되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단점을 가려야 한다**는 후반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9.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⑤, 정답률 : 34%

고난도

햇님쌤 해설 :

Can you see any fairness in a social system which lavishes great rewards on those who are totally unproductive, but makes no such kind provision for those without whom society couldn't exist at all?

당신은 완전히 비생산적인 사람에게는 상당한 보상을 주면서, 사회가 이들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었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제공을 주지 않는 사회 체제에서 어떤 공정함이라도 볼 수 있는가?

- 비생산적인 사람에게는 큰 보상을 주면서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됩니다.

The wretched earnings of the poor are daily whittled away by rich, not only through private dishonesty, but through public legislation.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없는 벌이는 부자들에 의해 매일 줄어든다, 사적인 부도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공적인 법제화를 통해서.

- 문제의식의 구체화: 부자들은 사적인 부도덕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공적인 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다.**

*모든 부분을 같은 강도의 힘으로 읽어서 안 됩니다. 즉, 필자가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읽을 때도 그 부분에 힘을 실어 읽어야합니다.

특히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의 경우, A도 있지만 B도!!!!!! 라는 의미를 전하는, 강조의 지표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을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as well as 구문으로 의미의 손상 없이 바꾸려면 B as well as A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죠.

In fact, when I consider any social system, I can't see it as anything but a conspiracy of the rich to advance their own interests under the pretence of organizing society.

사실, 내가 어떤 사회 체제를 고려할 때, 그것을(사회 체제를) 사회를 조직한다는 명분하에 그들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부자들의 공모(共謀)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다.

-In fact를 통해 앞 문장을 구체화: public legislation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 **사회를 조직한다는 명분하에 부자들끼리 공모하는 것**

They think up all sort of tricks and dodges, first for keeping safe their ill-gotten gains, and then for exploiting the poor by buying their labour as cheaply as possible.

그들은(부자들) 온갖 종류의 속임수들과 술수들을 생각해낸다. 우선은 그들의 부정하게 얻은 이익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가난한 사람들) 노동력을 가능한 싸게 구입함으로써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Once the rich have decided that these tricks and dodges shall be officially recognized by society - which includes the poor as well as the rich - they acquire the force of law.

일단 부자들이 이러한 속임수들과 술수들이 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 그런데 그 사회가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까지 포함한다 - 그들은 법의 힘을 얻는 것이다.

-**결국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함에 있어 그들의 개인적인 부도덕함(private dishonesty)만이 아니라 공적인 법제도(public legislation)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 필자가 말한 사회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In fact 이하부터는 그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연설명이 되겠구요. 그래서 **착취의 방식을 각종 속임수를 써서 공식적으로 사회에 인정받게 만들고 나면(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제화해서 착취를 제도로 만들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3번이 들어가게 되면 필자는 사회 체제상의 문제는 각종 속임수들을 사용한 부자들의 부도덕한 사리추구에 있다고 본 것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필자는 사회 체제상의 문제는, 그러한 부자들의 부도덕한 사리 추구가 [공적인 합법적 제도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3번 선지는 필자가 비판하는 법률적 착취 시스템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 일 뿐, 빈칸에 필요한 지향점은 아니죠.

또한 지문 어디에도 정치적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기에 1번도 적절하지 않죠. 혹시 legislation이나 law 같은 단어를 보고 1번을 생각하신 분들은 지문에 근거하지 않은 확대 해석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10.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㉓, 정답률 : 50%

고난도

햇님쌤 해설

: The importance of diffusion, and of geographic location in making it possible, is strikingly illustrated by some otherwise incomprehensible cases of societies that _____.

확산의 중요성, 또한 그것(확산)을 가능케 함에 있어서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은 다른 쪽으로는(otherwise) 이해가 불가능한 몇몇 _____한 사회들의 경우들에 의해 강력하게 입증되고 있다.

- otherwise: clockwise(시계의 방향, 시계의 방식)에서 알 수 있듯, -wise는 방식, 방향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likewise는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otherwise는 그 반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otherwise가 쓰이면 '다른 방식으로' 혹은 '그렇지 않았으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원래의 방식은 글 속에서 의미상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diffusion이 아니라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 그래서 위의 빈칸에는 '확산이 아니라면 이해 불가능한 경우'를 가진 사회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셨듯이 incomprehensible이 상당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런 말은 어찌 보면 필자의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독자와의 공감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글이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것을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We tend to assume that useful technologies, once acquired, inevitably persist until superseded by better ones. In reality, technologies must be not only acquired but also maintained, and that too depends on many unpredictable factors. Any society goes through social movements or fads, in which economically useless things become valued or useful things devalued temporarily.

우리는 유용한 기술들은 한 번 습득되면 불가피하게 더 나은 것들에 의해 교체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에서는, 기술들은 단지 습득될 뿐만 아니라 유지되기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에 달려있다.

어떤 사회든 사회적 변화들이나 유행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변화들이나 유행들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무용한 것들이 귀하게 여겨진다가 유용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천대 받기도 한다.

- 첫 문장에서 확산의 중요성이 드러난 케이스들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그 케이스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언급했군요. 뒷부분을 종합하면 우리는 유용한 기술이라면 습득이 중요하지, 습득된다면 더 유용한 것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네요.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른바 '불특정 다수의 고정관념' 에 불과하죠. 필자의 반대주장을 펼치기 위한 전형적인 글쓰기의 한 방법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그렇지 않다, 즉, 기술이 아무리 유용한 것이라도 유지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용한 기술이라도 유지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유지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걸로 보아, 유용한 가 유용하지 않은가처럼 상식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유용한 기술도 자칫 유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 뒤의 Any society ~ ~ 는 전 내용의 부연설명에 해당하겠죠.

Nowadays, when almost all societies on Earth are connected to each other, we cannot imagine a fad's going so far that an important technology would actually be discarded. A society that temporarily turned against a powerful technology would continue to see it being used by neighboring societies and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reacquire it by diffusion.

요즘, 거의 모든 세상의 사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한 유행이 굉장히 심해져서 어떤 중요한 기술이 정말로 버려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강력한 기술을 외면했던 사회라도 그것이 이웃 사회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고 확산에 의해 그것을 다시 획득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 중반부를 돌아서 드디어 우리가 시작했던 개념인 diffusion으로 돌아 오는군요.

글을 초, 중, 후반으로 나눌 때, A(화제, 소재) - B(예시, 구체화, 논증) - A'(결론, 마무리) 라는 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꼭 익숙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글을 읽다보면 어느새 전반부를 잊어버리곤 하는데, 이 첫부분이 중반부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매우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딴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내가 뭘 하려던 거였더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 아무튼, 중반까지 읽었을 때, 어떤 유행에 의해서 중요한 기술이 버려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현대의 사회들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정말로, 완전히(actually ↔ temporarily) 버려지지는 않는다 했군요.

즉, 재획득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diffusion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확산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란 바로 어떤 사회가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며, 중요한 기술을 일시적으로 버리게 되는 사회는 바로 확산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획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11.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⑤, 정답률 : 50%

고난도

햇님쌤 해설

: Truth has ever to be sought and renewed, reshaped and developed, so that, as understood by man, it may keep in line with the growth of his thought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life.

진리는 계속해서 추구되어야 하고 다시 갱신되어야 하고, 재형성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이해될 때, 그것은(진리는) 그의 생각과 인간의 삶의 발전과 맥락을 함께할 수 있다.

Only then does it become a living truth for humanity, supplying the essential need for which it craves.

오직 그때서야 그것은(진리는) 인류를 위한 살아있는 진리가 되고, 인류가 갈망하는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But if some one aspect of truth has been petrified by dogma in a past age, it ceases to adapt itself to the changing need of humanity.

그러나 만약 진리의 어떤 한 측면이 dogma(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 교조적 주장)에 의해 고정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인류의 변화하는 요구에 적응하기를 중단한다.

Indeed, it is probably not even understood to the extent it was understood in that past age when it grew up and was clothed in the language and symbols of that age.

정말로, 그것은 아마 그것이 성장했고 그 시대의 언어와 기호들로 입혀진 과거의 시대에 이해되었던 정도까지는 이해조차 되지 않는다.

For its context is different in a later age, the mental climate has changed.

왜냐하면 이후의 시대에서 그것의 맥락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정신적 분위기가 변했기 때문이다.

Moreover, as a philosopher has pointed out, every truth, however true in itself, yet, standing alone from others which at once limit and complete it, becomes a snare to bind the intellect and a misleading dogma; for in reality no thread must be taken apart from the fabric.

게다가, 한 철학자가 지적했듯이, 모든 진리는 그 자체로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그것을 제한하기도 하고 동시에 완성시키기도 하는 다른 진리들과 떨어져서는, 지성을 묶는 덩어리 될 뿐이고 빛나간 도그마가 될 뿐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실도 직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의 교훈은 고난도 문제의 정석 즉, '대충 아는 것으로는 함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런 출제자의 강력한 의지가 극한의 함정성 선지로 나타날 때 이것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글 전체의 뭉뚱그린 주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주제를 형성함에 있어 특정 부분들이 가지는 구체적 의미가 빈칸에 들어갈 때, 이를 빈칸 주변 부분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단 여러분들을 안심시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일테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변해야 한다'가 각인되고 그렇게 각인이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온통 모든 문장을 이것에 끼워 맞추기 바빠집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런 상태에서 출제자의 반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빈칸 부분은

-진리는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기능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못하니까

-왜 이해되지 못하나면... 의 흐름에서의 구체적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부분에서의 'standing alone ~~~' 부분의 해석과 의미가 정답으로 가는 직접적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번 선지는 그저 주제에 대한 상징적 반복에 불과할 뿐, 빈칸의 디테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2번 선지는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거나, 'standing alone', 'limit and complete' 같은 표현들은 진리들 서로간의 유기적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에 반해 '세상을 본다'는 것은 정답 선지에 비해 너무 추상적, 포괄적입니다.

12.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③, 정답률 : 88%

햇님쌤 해설 :

There are as many reasons as there are participants in jogging.

조깅에 참여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조깅을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But I have a hunch there's a further explanation of our obsession with exercise, 그러나 나는 우리가 운동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추가적인 설명이 있다는 예감이 든다.

I suspect that what motivates us even more than a fear of death is a fear of lack.
나는 죽음의 두려움보다 우리를 더 자극하는 것은 결핍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조깅을 하는 이유가 소재로 설정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이유를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그 원인을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군요. 도입부의 이 개념을 머금고 가셔야 합니다. 아시죠?

Our era is the first to anticipate the eventual depletion of all natural resources.
우리의 시대는 모든 천연 자원들의 궁극적 고갈을 예측하는 첫 번째 시대다.

We see the irreplaceable being wasted, and in the depths of our consciousness we are fearful that we are creating an uninhabitable world.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것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는 거주 불가능한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We feel more or less helpless and yet, at the same time, desirous to protect whatever resources we can.
우리는 다소 무력감을 느끼는 동시에 아직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원들은 뭐든지 지키길 바란다.

We recycle soda bottles and restore old buildings and protect our nearest natural resource - our physical health - in the almost superstitious hope that such small gestures will help revive an earth that we are withering.
우리는 소다병을 재활용하고 오래된 건물들을 수리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천연 자원인 우리의 신체 건강을 지킨다 - 그러한 작은 제스처들이 우리가 시들게 하고 있는 지구를 소생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라는 거의 미신적인 믿음 속에서.

*도입부에 이어 본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화두아래 '우리의 시대는~'이라는 일반론으로 논리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군요.
그 내용은 대체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에 대해 일종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파괴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작은 우리 몸의 건강을 되살리는 gesture(=jogging)가 자연을 되살리는 것의 첫 걸음이 될 거라는 superstitious hope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Jogging becomes a sort of salvation from our sins of greed and waste.
조깅은 욕망과 낭비라는 우리의 죄들로부터의 구원의 한 종류가 된다.

Like a hairshirt or a bed of nails of ascetics, the more one hates it, the more virtuous it makes one feel.
고행자의 헤어셔츠나 못 침대처럼, 누군가가 그것을 더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것은 그 사람이 더 도덕적이라고 느끼게 만든다.

*논리의 결론입니다. 해서, **조깅은 결국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종의 미신적 발상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결국, 스스로의 합리화일 뿐이겠죠. 마지막 문장을 거의 대부분 버리셨는데, 멋진 문장입니다. hairshirt는 고행자들이 입는 불편한 옷을 말하고, a bed of nails는 말 그대로 못이 박힌 침대, 즉, 고행자들이 역시 스스로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고 많은 고통을 줄수록, 그 고행자는 스스로를 virtuous 하게 느낀다는 고행자의 비유는 다소 귀찮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jogging과 같은 행위를 하는 심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②, 정답률 : 95%

햇님쌤 해설 (※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해석만 존재함)

Can you doubt that you are holding this book in your hands?

당신은 당신의 손에 이 책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가?

How many times, Descartes asks, has he dreamt that he was writing or reading, innocently viewing what he thought were his hands, when in fact he was actually sound asleep and not looking at anything at all?

데카르트가 묻기를, 얼마나 자주 그는 순진하게 자신의 손이라 생각했던 것을 보면서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꿈을 꾸었던가, 사실 그가 곤하게 잠들어 있었고 아무 것도 보고 있지 않았을 때.

The situation gets a lot worse if you do not have some criterion you can use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waking and dreaming experiences.

만약 당신이 깨어있는 경험과 꿈꾸는 경험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진다.

Before you get too far along in your thinking about conclusive signs of wakefulnes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sceptic has a ready reply for any of them.

당신이 깨어있음의 결정적 표식들을 생각해내는 것에 너무 몰두하기 전에, 회의가 그것들(표식들) 중 무엇에 대해서든 손쉬운 대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She can say that you have just dreamt the sign.

그녀(회의)는 당신이 그저 그 표식에 관한 꿈을 꿴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Maybe you think that you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dreams and waking life because you always wake up after a dream and then you can tell the difference.

어쩌면 당신은 꿈을 꾸 이후에는 항상 깨어나고 그 후에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꿈과 실제의 삶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Then, the sceptic can point to false awakenings.
그렇다면, 회의는 거짓 깨어남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you can dream a pinch on the arm too.
당신이 팔을 꼬집는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것도 또한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14.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②, 정답률 : 55%

햇님쌤 해설

A thing that makes the modern world baffling to understand is that technical developments have made a new social psychology necessary.

현대의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는 여러 기술적 발전들이 한 새로운 사회 심리를 필요하게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를 이해할 수 없는 것(baffling to understand)으로 규정했군요.

이와 같은 말들은 필자의 주관에 해당됩니다.

필자의 주관은 곧 필자가 글을 통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주제와 같은 방향에 있고, 우리는 이것을 독해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기술적 발전들이 어떤 새로운 사회 심리를 필요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현대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 새로운 사회심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해하는게 쉽지 않다고 단순화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현란하게 늘어놓은 문장을 뼈대들만 이용해 직접적 도식으로 만들어야 추상적인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읽으면 이후에 글을 읽는데 최소한의 목적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 그것은 바로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사회 심리’ 란 무엇인가?” 입니다.

From the dawn of history, the road to success was victory in competition. The milder believers in this creed content themselves with inflicting economic rather than physical death, but the psychology is much the same.

역사의 여명기로부터, 성공으로의 길은 경쟁에서의 승리였다. 이 신념의 약한 신봉자들은 스스로 육체적 죽음 보다는 경제적 죽음을 가하는 것에 만족하지만, 그 심리는 거의 같다.

*과거의 성공은 경쟁의 승리라 했군요.

그리고 경쟁을 통해 육체적 죽음을 가하는 것이나 경제적 죽음을 가하는 것이나 그 ‘심리’는 똑같다고 했네요.

즉, 경쟁에서의 승리, 나아가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성공으로 보는 것이 바로 과거의 ‘심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과거에 세상을 쉽게 보게 해주었던 사회 심리’ 가 되겠죠.

In the modern world owing to increase of skill, this process is no longer satisfactory. The victors in a competition do not grow so rich as both parties could by combination.

현대 세계에서는 기술의 증가로 인해, 이 과정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다.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양측이 조합에 의해 이룰 수 있는 것만큼 부유해지지 못한다.

*위에서 나온 technical이나 skill과 같은 단어들은 그 자체로 언제나 자연과학적 기술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추상적인 지문에서 이런 단어들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바라보아야 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어쨌든, 쉽게 말하면, 결국 세상이 변해서, 과거의 것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으니,

과거의 '사회 심리'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협력을 하는 것이 더욱 서로를 부유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The half-unconscious appreciation of this fact produces in intelligent young people an impulse towards general goodwill, but this impulse is baffled by the mutual hostility of powerful groups. Goodwill in general - yes, goodwill in particular - no. 이 사실에 대한 반쯤 무의식적인 이해가 지적인 젊은이들에게서 보편적 선의에 대한 충동을 만들어내지만, 이 충동은 강력한 집단들의 상호 적개심에 의해 좌절된다. 보편적으로 선의는 허용되지만, 특정한 경우의 선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자, 이것을 배워서 알고 있는 지적인 젊은이들은 '보편적 선의' 라는 것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몇 패권을 가진 집단들이 보여주는 서로간의 적개심(예: 미국 Vs 구소련)은 세상의 새로운 이치를 '보편적 선의'라고 이해했던 젊은이들에게 의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보편적 선의와 특수한 선의의 대립 관계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 심리' 가 될 것입니다!

This conflict between the general and the particular seems to make it impossible to have any one clear principle in action.

이러한 보편과 특수간의 갈등은 행동에 있어서 어느 한 명백한 원칙을 가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다.

*결국 문제의 부분은 현대사회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새로운 사회 심리로 인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어지는가를 상술하라는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 심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 경우에 따라 대립되는 모습을 띠는 것이었구요.

그러니, 그런 오락가락 하는 사회 심리는 그 사회 안의 사람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 대관절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를 모르게 만든다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사용된 social psychology는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서로간의 관계 속에서 탄생하는 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았을 때, 이를테면 국가와 같은 것 말이죠. 그 때, 그 사회가 가지는 심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래서 국가나 사회와 같은 것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문을 읽는데 있어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추상적 지문에서,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도입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중심으로 글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관점에서 해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⑤의 함정에 빠지셨는데요, 사실, 의도적으로 정답과 이 선지와와의 갭을 상당히 좁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차이를 킬러문항 정복으로 가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설을 모두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글에서 현대사회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행동 양식에 있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질서(order)'라고 부르는 힘들 것입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과, 새로운이라는 말 등이 정답과 거의 흡사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답이 하나라는, 즉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다는 부동의 진리를 고려하여 ②와 ⑤ 선지를, 바로 이 기준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15.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②, 정답률 : 14%

고난도

햇님쌤 해설

We're a species that is capable of almost dumbfounding kindness. We nurse one another, romance one another, weep for one another. Ever since science taught us how, we willingly tear the very organs from our bodies and give them to one another.

우리는 거의 말도 안 될 정도의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종이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위해 울어준다. 과학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준 이래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몸의 바로 그 기관들을 떼어 서로에게 준다.

*도입부의 첫 문장이 인간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군요.

거의 대부분 대상의 규정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이 따라 나옵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군요. 대단히 현란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지만, 이는 인간의 kindness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And at the same time, we slaughter one another.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학살한다.

*대조되는 인간의 특성이 등장했군요. 이후엔 역시 밸런스상 이 규정에 대한 부연설명이 나오겠지요.

The past 15 years of human history are the temporal equivalent of those subatomic particles that are created in accelerators and vanish in a trillionth of a second, but in that fleeting instant, we've visited untold horrors on ourselves – all of the crimes committed by the highest, wisest, most principled species the planet has produced.

인간 역사의 지난 15년은 1조분의 1초 안에 입자가속기들에서 탄생되고 사라지는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의 시간상의 등가물에 불과하지만, 그 덧없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관한 밝혀지지 않았던 두려운 모습들 – 지구가 탄생시킨 가장 고등하고 현명하고 가장 원칙 있는 종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들 – 과 마주해 왔다.

*인간의 잔인한 모습에 대한 부연설명이 역시 화려한 입담과 함께 등장하고 있군요.

그런데, 느끼셨겠지만, 인간에 대한 커다란 비아냥거림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자만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비참하게 깨졌다는 것입니다.

That we're also the lowest, cruelest, most blood-drenched species is our shame – and our paradox. The deeper that science drills into the substrata of behavior, the harder it becomes to preserve the vanity that we are unique among Earth's creatures.

우리가 또한 가장 열등하고 잔인하며 가장 피로 적셔진 종이기도 하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 – 우리의 모순이다. 과학이 행동의 기저층들로 더 깊게 뚫고 들어갈수록, 우리가 지구의 모든 존재들 중 유일하다는 그 허영심을 보존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결국 이 글의 핵심은 인간의 부끄러운 이면에 대한 비아냥거림이며, 그 과정에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 가졌던 자만, 즉 허영심을 등장시키는 극적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정답의 열쇠였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선지 고르기입니다.

평가원이 2개의 선지로 최종 경합을 유도하는 정도였다면, 이번 문제의 선지들은 모두 같은 방향에서 경합을 벌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정확성' 입니다. 주관을 배제하고 비슷한 말이 아닌, 언급된 내용을 가장 정확한 말로 재진술하고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 ①은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합리성'에 두었으나 글 어디에도 '합리성'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kindness와 cruelty는 모두 '성격'에 관한 것이지만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표현들이죠.

– ②의 핵심은 dignity라는 표현과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진술입니다.

본문은 원래 인간은 존엄한데, 그것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근대에 들어와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해야 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봐야겠죠.

- ③의 핵심은 goodness일 텐데요.

이 역시 12345112345처럼 본문에서 그다지 집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너무 디테일하게 얽매어 있습니다. human mind의 goodness 즉, morality에 관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이 글은 인간에게 도덕성이 남아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인간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점임을 명심하세요.

- ④의 정답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vanity와 unique이죠. 일단 vanity가 글 전체의 의도를 잘 드러내 주고 있고,

unique라는 단어는 다른 선지들과 다르게 위에서 나온 the highest, the wisest, the most principled를 모두 포괄할 수 있습니다.

- ⑤는 ③과 마찬가지로 소재이지만, 매력은 더 떨어지는 오답이죠.

특히 for their own sake라는 표현을 잘 해석을 못해서 선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넣고 해석하면, 도덕적 행동들을 실행한다, 도덕적 행동들 그 자체를 위해 (즉,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③과 비슷한 내용(소재)이지만, **for their own sake가 들어가버리면, 도덕적 논쟁 자체가 대단히 더 hard 해지게 됩니다. 즉, 글에서 그만큼 더 멀어진다는 뜻이죠.**

16.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②, 정답률 : 43%

고난도

햇님쌤 해설

One rivulet meeting another, with whom he had been long united in strictest amity, told him - 'What, brother! still in the same state! Still low and creeping! Are you not ashamed, when you behold me, who though lately in a like condition with you, am now become a great river, and shall shortly be able to rival the Danube or the Rhine, provided those friendly rains continue which have favored my banks, but neglected yours?'

한 개천이 오랫동안 가장 지고지순한 친교로 함께해왔던 다른 개천을 만나며 그에게 말했다 - '이런, 형제여! 여전히 같은 모습이라니! 여전히 얇고 느리잖아! 비록 지난번엔 자네와 같은 상태였지만 지금은 거대한 강이 된, 그리고 나의 독들은 좋아하고, 자네의 것들은 무시했던 저 친숙한 비가 계속된다면, 곧 다뉴브강이나 라인강과 경쟁할 수 있을 나를 볼 때, 자네는 부끄럽지 않은가?'

'Very true,' replies the humble rivulet, 'You are now, indeed, swollen to a great size; but I think you are become somewhat turbulent and muddy. I am contented with my low condition and my purity.'

'정말 그렇네' 그 겸손한 개천이 대답한다, '자네는 지금 정말로 엄청난 크기로 불었군; 하지만 내 생각엔 자네가 약간 거칠고 흙탕물이 된 것 같아. 난 나의 낮은 상태와 나의 맑음에 만족하네.'

Such of my readers as are placed in the middle station to be satisfied with it form the most numerous rank of men that can be supposed susceptible of philosophy; and therefore all discourses of morality ought principally to be addressed to them.

중도에 위치하고 그것에 만족하게 될 그러한 나의 독자들은 철학을 잘 흡수할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가장 다수의 지위를 형성하므로 도덕성의 모든 담론들은 원칙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져야만 한다.

The great are too much immersed in pleasure, and the poor too much occupied in providing for the necessities of life, to listen to the calm voice of reason.

성공한 자들은 쾌락에 너무 몰입되어, 초라한 자들은 생필품을 조달하는데에 너무 몰입되어서 이성의 고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가 없다.

*비유의 우화가 등장했습니다. 두 개의 개천이 등장합니다. 둘은 원래 같은 뿌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요. 하지만 한 개천은 대단히 큰 개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천은 turbulent하고 muddy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작은 모습인 친구는 자신의 현상태의 pure함을 만족스러워합니다. 마치, **백지처럼 그 안에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모습은 이후의 susceptible of philosophy한 상태와 연결**됩니다.

*우화 이후에 placed in the middle station/satisfied/susceptible of philosophy 등이 정답의 키워드입니다. 결국 middle station의 사람들이야 말로 철학의 진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③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전히 강력한 함정 선지가 존재할 때,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은 주관을 완벽하게 배제한 디테일한 해석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글에서는 분명 all discourses of morality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③에서는 morality의 the great virtue를 accept한다고 했죠. 도덕성에 관한 모든 담론이란 결국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담론이라고 했으니, 중립적이며 학구적입니다. 하지만, 도덕성의 좋은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훨씬 더 **제한**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그것만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철학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직한 행동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깊은 생각은 못한다 하더라도, **긍정 부정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all의 가능성과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great virtue만 구별**했다라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독해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떠들수록, 필자가 하는 이야기는 잘 안들리게 됩니다!!!**

(+) Structure (3~8행)

- Are you not ashamed, when you behold me,

접속사 when으로 연결. - who

여기서부터 관계사절, 선행사는 me

- though lately in a like condition with you,

관계사절 안에서 다시 접속사절 등장

그런데 분사구문 원래는

though was lately in a like condition with you(주어는 주격관계사 who 때문에 없음)

그런데 was가 having been이 되면서 생략됨.

- am(V1) now become a great river,

관계사절 안에서의 주절 등장/ 역시 주격관계사 절이기 때문에 주어는 없음.

- and shall(V2) shortly be able to rival the Danube or the Rhine,

병렬

- provided those friendly rains continue

provided (that) S V ~~~ ; 만약 S가 V한다면 = given (that) S V ~~~

- which have favored my banks, but neglected yours?

friendly rain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

17. [출제의도] 상호 작용

정답 : ⑤, 정답률 : 50%

고난도

햇님쌤 해설 (※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해석만 존재함.)

I love the theatre and everybody connected with it, from actor to stagehand. I believe, however, that this business of "the show must go on" has been overdone a bit as it concerns the acting profession.

나는 극장과 배우에서 스태프까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의 실행이 연기 분야와 관련해서만 다소 과하게 이뤄져왔다 믿는다.

Not that I doubt the truth behind this tradition, I know very well that performers have faced their audiences with deep sorrow in their hearts; with news of some terrible personal disaster, and as in Pagliacci the clown bravely goes on with the show: "Laugh with the sorrow that's breaking your heart."

내가 이 분야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연기자들이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가지고 관객과 마주해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Pagliacci에서 그러하듯, 광대는 끔찍한 개인 사에 관한 소식을 가진 채, 용맹하게 쇼를 진행한다: **“너의 마음을 짓이기는 슬픔으로 웃어라.”**

I rise up to applaud. But I do not applaud actors alone. Life itself. Everybody goes out on the "stage" with sorrow in his heart.

나는 일어나 박수를 친다. 허나 배우들에게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다. **삶 그 자체다.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 슬픔을 안고 무대 위로 나아가기에.**

How many workingmen have come home from the cemetery where they had just buried a child and sat right down at their workbenches, machines, and lathes? THE SHOW MUST GO ON. We dare not stop "the show" for a single moment.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방금 자식을 묻은 묘지로부터 집으로 돌아왔는가, 그리고 작업대에, 기계들에, 선반들에 바로 앉았는가?

“THE SHOW MUST GO ON!” 단 한 순간도 감히 쇼를 멈춰서는 아니 되리라.

18. [출제의도] 글의 순서 배열

정답 : ②, 정답률 : 100%

햇님쌤 해설

(※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게시물에 올라온 해설을 직접 보기를 권장.)

첫 번째 단서: initially

The differences between gigantic supermarket strawberries and tiny wild ones arose initially from natural variation among the wild plants themselves.

슈퍼마켓의 거대 딸기와 야생의 작은 딸기 사이의 차이가 처음에는 야생에서 자연적인 변이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initially 같은 단어들은 순서를 따짐에 있어 꼭 참고해야 할 **고급 힌트**입니다.

결론적으로 **crop**으로서의 딸기와 야생의 딸기의 차이점이 처음에는 자연의 변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는 무언가 다른 변이(아마도 자연과 반대되는 인위적)로 마무리 된다는 순서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도입부의 이 진술이 글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야생의 식물이 작물로 변모하는 전체의 과정은 자연의 변이에서 시작해 인위적 변이로 마무리 된다! 이런 추론이 바로 **initially** 한 단어에 의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A)에서는 competition among plant individuals in gardens라고 하면서 자연적 조건의 변이가 아닌 인위적 변이의 조건이 나오고 있군요.

두 번째 단서: the selection of wild edible plants by ancient hikers

이것은 말 그대로 고대의 hiker들이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을 수 없는지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슈퍼마켓의 딸기가 되기 위한 과정 중, 가장 첫 번째 과정이 되겠지요. 이렇게 선별을 하고 그 이후에 가져와서 인간에 의한 인위적 변이가 나중 과정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추론은 역시 initially가 만들어준 대략적인 그림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ncient hikers가 선별을 할 때, 의식적인 기준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었든 없었던 the resulting evolution of wild plants into crops라는 최종 결과가 at first 처음엔, 즉, 선별 과정상에서는 결국 무의식적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군요.

그리고는 it(the resulting evolution), 즉, 그 최종 결과는 결국 첫 과정 때문이 아니라 정원에서의 경쟁(인위적 변이)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다윈이 그 유명한 저서인 종의 기원을 쓸 때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자연선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 선택으로 그 첫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로 연결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첫 과정(선별 과정)이 의식적이었냐 무의식적이었냐 하는 이야기가, (B)에서 변이의 일부는 notice(conscious)되고 다른 일부는 unrecognized(unconscious)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B)는 (A)를 도출하기 위한 이전의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에서 시작한 첫 과정에 관한 이야기의 의의를 (A)가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시문과 시각상 첫 번째에 놓인 (A)를 마치 압축 파일을 풀듯이 풀어놓으니 하나의 전개도가 뿡! 하고 나타났습니다.**

19. [출제의도] 글의 순서 배열

정답 : ②, 정답률 : 100%

햇님쌤 해설 (※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해석만 존재함)

<제시문>

Whole vocabularies exist in languages, and in people's heads. In a society where there was no writing, dictionaries would not exist but then neither would they be needed. Speakers would learn all the words they needed from others' use of them.

전체의 어휘들은 언어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 속에 존재한다. 저작물이 없던 사회에서는 사전들이 없었을 것이지만 그 때는 그것들이 필요치도 않았을 것이다. 화자들은 그들이 필요한 어휘들을 타인들의 어휘 사용으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B) However, writing makes it possible to look up in dictionaries words which one might not come across in the normal course of events. Indeed the first dictionaries of English were published with this in mind.

그러나, 저작물은 누군가가 정상적인 사건들의 과정 속에서 전달하지 못할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는 것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최초의 영어사전은 이 점을 유념하고 출판되었다.

(A) As the speakers of English became more socially stratified and as literacy became more common among middle-class people, there were words in writing that were not in people's own vocabularies.

영어의 화자들이 사회적으로 보다 계층화되고 문학이 중산층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보편화 되어 감에 따라, 저작물 속에 사람들 자신만의 어휘에는 없었던 단어들이 나타났다.

(C) Clearly they needed a dictionary, and that market niche was filled first by rather simple lists of 'hard' words but later and most notably by Samuel Johnson's dictionary, in which he attempted to list all of the words in the eighteenth-century English of his time.

명백히 그들은 사전이 필요했고, 그 시장의 틈새가 처음에는 '어려운' 단어들의 대단히 간단한 목록들에 의해 채워졌지만 나중에는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는 Samuel Johnson의 사전에 의해 채워졌는데, 그 사전에서 그는 자기 시대인 18세기 영국의 모든 단어들을 나열하기를 시도했다.

20. [출제의도] 글의 순서 배열

정답 : ④, 정답률 : 57%

햇님쌤 해설

제시문: The whole subject of happiness has been treated too solemnly. It has been thought that man cannot be happy without a theory of life or a religion.

행복에 대한 모든 주제는 너무 장엄하게 다루어져왔다. 사람은 삶의 이론이나 종교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왔다.

→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없다는 단서가 되겠조?

(C) Perhaps those who have been rendered unhappy by a bad theory may need a better theory to help them to recovery, just as you may need a tonic when you have been ill. But when things are normal a man should be healthy without a tonic and happy without a theory.

아마도 나쁜 이론에 의해 불행해진 사람은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더 나은 이론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당신이 병에 걸릴 때 약이 필요하듯이. 그러나 모든 것들이 정상일 때 사람은 약 없이도 건강할 수 있고 이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 제시문에서 (C)로 연결되는 흐름: 제시문 일부 인정 후 반박

→ 나쁜 이론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더 나은 이론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 라면(나쁜 이론이 없다면) 이론 없이 행복할 수 있다.

(A) If a man delights in his wife and children, has success in work, and finds pleasure in the alternation of day and night, spring and autumn, he will be happy whatever his philosophy may be.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일에서 성공하고, 낮과 밤의 변화, 봄과 가을이 번갈아 오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한다면, 그는 그의 철학이 무엇이든 간에 행복할 것이다.

*(C)에서 (A)로 연결되는: 이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C)의 예시.

→ 철학이 무엇이든 간에 행복할 수 있다.

(B) Man is an animal, and his happiness depends on his physiology more than he likes to think. Unhappy businessmen, I am convinced, would increase their happiness more by walking six miles every day than by any conceivable change of philosophy.

사람은 동물이다, 그리고 그의 행복은 그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 보다 그의 생리에 더 많이 의존한다. 나는 확신한다, 불행한 회사원은 어떤 가능한 철학의 변화 보다 매일 6마일을 걸음으로써 그들의 행복을 더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고.

*(A)에서 (B)로 이어지는 흐름: 논리의 확장, 결론

→ 이론, 철학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일단, 이 문제는 (C)를 잡아둔 상태에서 (A)와 (B)의 싸움이었습니다. (C)이외에 다른 것을 먼저 두신 분들은 해석의 디테일에 조금 더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A)와 (B)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무엇이 우선 하느냐 보다는 어느 것이 먼저 오는 게 더 좋은 글이 되느냐의 관점입니다. 즉, 문제 그대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다' 는 것이지요.

(A)에서는 논리의 진전 없이 그저 '철학이 무엇이든' 이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C)에서 언급한 것이지요.

그래서, (A)의 레벨은 그저 예시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 예시를 (C)의 것으로 볼 것인가, (B)의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겠죠?

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개념의 등장입니다.

(B)에서는 철학이 중요치 않다는 대안으로 '신체적 건강'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으나, (A)에서는 논리의 진전이 없이 (C)처럼 그저 철학이 없어도, 무엇이어도 행복할 수는 있다고 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으로 가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21. [출제의도] 글의 순서 배열

정답 : ⑤, 정답률 : 65%

<제시문>

Discourse is connected thought, expressed in words. It moves this way and that, like the shuttle in the loom weaving the fabric of reasoned argument.

담화는 말로 표현되는 연결된 생각이다. 그것은(담화는) 이쪽 저쪽으로 오고간다, 이성적인 논쟁이라는 직물을 짜는 베틀 속의 실패처럼.

***담화의 정의, 성격 제시**

(C) In discourse with others opinion is formed, knowledge is acquired, and truth attained. What is said by one speaker, combined with what is said by another speaker, may yield a truth, not previously known to either speaker.

다른 사람들과의 담화 속에서 의견은 형성되고, 지식은 획득되고, 진리가 얻어진다. 한 사람에게 의해 말해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 말해진 것과 결합될 때, 진리를 산출할 수 있다. (결합) 이전에는 두 화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의 담화를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In discourse로 시작하면서 제시문과 연결되므로 (C)가 먼저 오는 것이 적절함.**

(B)

Also, in the practice of what is called reflection or meditation, a truth learned today links up with a truth learned yesterday, and the two truths may point the way to some advance or even discovery of tomorrow.

또한, 성찰 혹은 명상이라 불리는 것의 실천 속에서, 오늘 배워진 진리는 어제 배워진 진리와 연결된다, 그리고 그 두 진리는 어떤 진보나 심지어는 내일의 발견으로 가는 길을 가리킬 수 있다.

->혼자서 하는 성찰, 명상을 통해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C)에서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을 also로 받아주면서, 혼자 성찰을 통해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흐름이므로 (C) 다음에는 (B)가 나와야 함.**

(A) From what others have said or what we ourselves have thought, conclusions and inferences are drawn and they are the special concern of logic. It is all too easy to draw wrong conclusions and false inferences; and discourse without the discipline of logic is a fruitful source of false opinion, ignorance and error.

다른 사람들이 말해온 것 혹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온 것들로부터, 결론들과 추론들이 이끌어진다 그리고 그들은(결론들과 추론들은) 논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거리이다. 틀린 결론들과 추론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너무 쉽다; 논리의 연습이 없는 담화는 틀린 의견과 무지 그리고 오류 생산의 원천이다.

*From what others have said: (C)에서 말한 다른 사람들과의 담화와 연관
 what we ourselves have thought: (B)에서 말한 혼자서 하는 성찰과 연관
 → (C)와 (B)를 종합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에 오는 것이 적절함.

22. [출제의도] 문장 삽입

정답 : ④, 정답률 : 59%

햇님쌤 해설

<제시문>

Given that some services are to be provided by the market, what laws should govern interactions among citizens in market transactions?

만약 어떤 용역들이 시장에 의해 공급된다면, 어떤 법이 시장 거래에서 시민들 사이의 거래를 규제해야 하는가?

-시장 경제하에서 법 규제에 대한 물음

<지문>

Should government be big or should it be small? Should government intervene in markets sometimes or should it always let markets operate freely? (①) While the first relates to which goods and services should be provided by the free market and which by the government, the second relates to the rules under which the free market will operate.

정부는 커야하는가 작아야 하는가? 정부는 때때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혹은 항상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첫 번째 물음(첫 문장)이 어떤 재화와 용역이 자유 시장에 의해 공급 되어야 하고 어떤 재화와 용역이 정부에 의해 공급 되어야 하는지와 관련되는 반면, 두 번째 물음(두 번째 문장)은 그 하에서 자유 시장이 작동할 규칙들과 관련된다.

-첫 번째 물음: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어떤 재화와 용역이 어떻게 분배되느냐와 관련

-두 번째 물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어떤 규칙들 하에서 시장 경제가 돌아가야 하느냐와 관련

- 제시문은 어떤 '법'이 시장 경제를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니까 후자에 속함(rules=laws)

* 전자와 후자로 이어지는 매끄러운 연결: 제시문 삽입 불가 (1번 탈락)

(②) As a society, we must choose whether to provide publicly funded pension systems and decide whether health care is to be freely provided to all and, if so, how much of it to provide. (③) These are all questions about the size and scope of government.

사회로서, 우리는 공적으로 적립 연금 제도를 제공할지를 선택해야만 하고 의료 서비스가 자유롭게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제공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정부의 크기와 범위에 대한 물음들이다.

* 전자와 관련된 물음에 속하는 2번과 3번은 탈락

(④) Should all prices be chosen freely by the market, or are there some prices that must be controlled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⑤) These are all questions about the rules under which the free market should operate.

모든 가격들이 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하는가, 혹은 정부 개입을 통해 통제되어야만 하는 몇몇 가격들이 있는가? 이것들은 그 규칙들 하에서 자유 시장이 작동해야 하는 규칙들에 대한 물음들이다.

*후자와 관련된 물음에 속하는 4번 또는 5번에 제시문 삽입이 가능해 보임.

그런데 4번과 5번 사이의 문장인 Should ~?는 시장 경제 상황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으므로 '몇몇 서비스들이 시장에 의해 공급된다면'이라는 가정을 시작한 제시문이 4번에 들어가야 적절함. 또한 제시문이 뒷 문장보다 포괄적인 진술이므로 4번에 들어가야 적절함.

23. [출제의도] 문장 삽입

정답 : ②, 정답률 : 45%

고난도

햇님쌤 해설

<제시문>

Historical evolution may reveal an endless train of yet undreamed-of modes of government, adaptations to changing needs and changing demands.

역사의 발전은 아직 꿈꿔지지 않은 정부의 형태들, 즉, 변화하는 필요사항들과 요구사항들에 대한 각색물들의 끝없는 훈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There is one confusion about the nature of democracy which we must seek to dispel. Democracy first expressed itself in a parliamentary system, and on the whole it is still associated with that system.

우리가 반드시 추방하려고 노력해야 할 민주주의의 속성에 대한 한 가지 혼란이 있다. 민주주의는 처음에 그 자신을 의회제도 속에서 표현했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그 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①) But it is quite possible to conceive of democracy as existing without parliamentary institutions in the traditional sense.

그러나 민주주의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의회 제도들 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②) Already, in every democracy, important activities of regulation are outside the direct control of parliaments.

이미, 모든 민주주의에서, 규제와 중요한 활동들은 의회의 직접적 통제 밖에 있다.

(③) Everywhere the necessities of administration have created boards and commissions, controls and corporate functions, devoted to fundamental national tasks.

곳곳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필요성들이 근본적인 국가적 과제들에 헌신하는 이사회들과 위원회들, 즉, 통제체들과 기업적 기능체들을 창조해왔다.

(④) If this process continues, parliaments and congresses may cease to be the main centers of national life.

만약 이 과정이 계속되면, 여러 형태의 의회들은 국가의 생명의 중심지이기를 멈출지도 모른다.

(⑤) But if freedom continues, democracy will still prevail. The mechanism of democracy must always change if conditions change and the principle of liberty abides.

그러나 자유가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는 여전히 유행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방식은 조건이 변화하고 자유의 원칙이 준수되는 한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발문에서 말한

historical evolution: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

yet undreamed-of modes of governments: 방향성은 담고 있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알려주지 않은 도입부적인 느낌,

adaptations to changing needs and changing demands: 변화에 대해서 적응한 형태들이라고 했으나 역시 구체적인 언급이라기보다는 아직 부정확하고 포괄적인 표현.

위의 것들에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 진술 이전의 포괄적 성향의 방향제시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고, 지문의 나머지 것들이 모두 그 구체화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발문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가 명백하지 않은 문제에서는 나머지 문장들 간의 유기성이 얼마나 끈끈한지를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관점에서 나머지 오답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의미상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를 한 번 붙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 [출제의도] 문장 삽입

정답 : ③, 정답률 : 71%

햇님쌤 해설

<제시문>

Passionate opposition to scientific 'encroachment' into history exists, usually from the opposite perspective against natural science.

보통은 자연과학에 대한 반대 관점에서 나온, 과학의 역사로의 잠식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있다.

*발문이 **opposition**으로 시작합니다. 논리의 흐름을 묻는 질문에서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즉, 무엇이 무엇과 반대되는가를 파악하는가가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역사학으로 잠식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한다는군요. 그리고 이런 반대가 자연과학에 대한 반대 관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했습니다. 자연과학의 반대관점이라면, 그리고 역사학이 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인문학이 되겠죠.

그렇다면, '인문학 분야에 자연과학적 요소가 잠식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라는 논리가 하나 완성되는군요.

History joins astronomy and volcanology in being an evidentially founded but non-experimental discipline. We do not find theorists arguing that history should be written in contravention of the evidence. Nonetheless, to ask how and to what extent the evidence should guide historical accounts does permit substantive debate.

역사학은 증거에 의해 확립되지만 실험에 근거한 학문은 아니라는 점에서 천문학과 화산학에 합류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학이 증거에 반하여 쓰여지는게 당연하다 주장하는 이론가들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증거가 역사학의 설명들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은 중대한 논쟁을 허락하고 있다.

*지문의 시작이 '역사학' 입니다. 역사학이라는 소재를 규정짓는 것에서 글이 시작하는군요. 이미 발문에서 역사학과 같은 인문학이 자연과학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것을 참고하면서 그 성격의 규정을 읽어봅시다. 역사학의 성격은 'evidentially founded but non-experimental discipline'이라고 했군요. 즉, 증거에 기반하지만 실험에 기반하지 않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어디까지 역사학적 설명에 관여하는가는 중대한 논쟁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와 역사학적 설명이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위에서 우리가 설정한 대립관계와의 대입을 통해 증거=자연과학, 역사학적 설명=인문학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겠군요.**

그리고 흐름 문제에서 중요한 도입-상술의 맥락에서 볼 때, 여기까지 중대한 논쟁이 시작되는 배경을 설명했지만, 그 중대한 논쟁이 무엇인지의 상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Some feature of humanity is deemed essential to history: emotion, rationality, free choice, or cultural meaning. Yet that feature, it is argued, is in principle invisible to or inexplicable by a scientific history. Behind these concerns often lies a more

nebulous concern that an exclusive use of natural science will have deleterious effects on our understanding of ourselves.

인문학의 어떤 특징은 역사학에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감정, 합리성, 자유 선택, 혹은 문화적 의미. 그러나 그 특징은 원칙적으로 과학적 역사학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것에 의해 설명될 수도 없는 것으로 주장된다. 이러한 근심들의 뒤에는 자연과학의 배타적 사용이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대략적인 근심이 놓여있다.

*인문학의 요소가 자연과학적 관점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문학이 자연과학의 간섭을 왜 반대하는지가 나와있죠, 즉, 논쟁의 상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시작-인문학의 자연과학에 대한 격렬한 반대-그 이유라는 맥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되짚어봅시다.

이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발문의 opposition to~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립관계의 파악에서 시작된 것이죠.

대립관계가 설정되었다면, 다음의 사항들이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 ① 그 대립의 대상들이 누구인지
- ② 그 대립의 대상들을 나누는 기준
- ③ 그 대립의 이유

25. [출제의도] 문장 삽입

정답 : ③, 정답률 : 100%

햇님쌤 해설

<제시문>

But that does not mean that individuality should be destroyed and the individual become a mere tool of the community, like a bee or an ant.

그러나 그것이 개별성이 파괴되어야 하며 개인이 벌이나 개미처럼 공동체의 단순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전형적인 패턴의 삽입 문제의 발문입니다. 즉, 역접의 연결어를 주고 이것이 들어갈 논리상의 자리를 찾으라는 것이지요. 또한, but that does not mean that ~~ 이라는 표현 자체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수사학적 기법이죠. **즉, 앞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으나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러니 앞에서는 무언가 공동체를 더 강조하는 논리가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It should develop in the young individuals those qualities and capabilities which are of value for the welfare of the common-wealth. (③) For a community of standardized individuals without personal originality and personal aims would be a poor community without possibilities for development.

그것(학교)은 어린 개인들에게 국가전체의 복지를 위해 가치 있는 그런 성향들과 능력들을 개별 시켜 주어야 한다. (㉓) 왜냐하면, 개인적 독창성과 목표들 없이 표준화된 개인들로 이뤄진 공동체는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초라한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㉓의 전에서는 국가전체의 복지를 위한 qualities를 개발해 주어야 한다고 했고, ㉓의 뒤에서는 개인의 독창성이 없는 사회의 위험함을 이야기 했으므로, 서로 강조점이 대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발문을 넣으면 부드럽게 이 앞과 뒤를 연결 할 수 있겠죠?

Epilogue...

- 여러분은 마음을 짓이기는 슬픔을 겪어보셨나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그렇다 해도,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 맞닥뜨려 이보다 더 힘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힘없이 주저앉아, 자신을 지나치는 모든 불특정다수를 향해 어떻게 좀 해달라는 듯이 목적 불명의 어리광을 부리고 있을 때,

삶은 반드시 보란 듯이 비웃으며 더 가혹한 선물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투쟁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력이 충돌 했을 때만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투쟁은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요, 세상의 작동 원리입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앉아 감히 쇼를 멈추지 마세요.

모두가 쇼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용맹하게 일어나서 쇼를 계속하세요.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슬픔을 안은 광대의 웃음이 측정할 수 없는 아이러니의 감동을 주듯이,

슬픔을 여러분의 삶을 이겨넘어 주는 감동의 결정체로 만들어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을 때, 모두가 손 내밀어 위로를 바랄 때, 모두가 그저 비극의 주인공인 것을 즐기고 있을 때, 절망이 뺏속까지 파고들어 왔을 때,

그때야 말로, 최고의 감동이 무르익을 때입니다.

내 안의 슬픔이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승화할 때입니다.

터널이 길수록

터널의 끝에서

햇살은 더욱 눈부십니다.